

# 주유소, 독자 알뜰 브랜드 구축

연합회, 지경부에 설립 신청서 제출 ... 자체 세력화로 진로 모색

알뜰주유소 전환을 희망하는 일부 자영 주유소 업주들이 자체 알뜰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주유소 시장에 따르면,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소속 업주 15명은 9월18일 지식경제부에 KG(Korea Global) 알뜰이라는 독자적인 알뜰브랜드 주유소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9월21일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모두 735개로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NH알뜰>이 368개로 가장 많고, 자영 알뜰 223개, 한국도로공사 소속 <EX알뜰> 144개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업주들은 자영 알뜰에 편입되기보다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알뜰주유소 전환 비용 2700만원은 지원받되 간판의 디자인을 바꾸는 등 기존 자영 알뜰과는 외양상 다소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KG는 자영주유소연합회가 석유 공동구매를 위해 3월 설립한 법인 <한국글로벌에너지>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2월 SK에너지 폴을 단 주유소 업주 200여명을 주축으로 결성돼 현재 회원 수가 1200여명(인터넷카페 회원수 기준) 정도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2011년 말 알뜰주유소 정책을 발표하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 회원 업소의 절반가량을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합회가 독자 브랜드 구축에 나선 것은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알뜰주유소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자체적인 세력화를 통해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

연합회는 독자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선 다변화와 공동구매를 통한 공급가 인하 등 <규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5>